

'광산시민 1%' 전문 역량 갖춘 응급처치사로 양성

광산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업무협약...9월부터 교육 화재·자연 재해·대형사고 등 시민 중심 긴급 상황 대응능력 향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광주 광산구가 광주시에서는 처음으로 '시민 1%를 전문 역량을 갖춘 응급처치사'로 양성하는 사업에 나섰다.

23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광산시민 1% 응급처치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산시민 1% 응급처치사 양성은 화재, 자연 재난, 대형사고 등 긴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작동하는 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 참사 등을 계기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심장이 갑자기 멎는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늘어나는 사회적 상황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응급상황 발생 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은 4~6분 정도로 이때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면

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2~3배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의 2019년 발표를 보면 의료인 외 심폐소생술 시행 시 생존율이 15%로 하지 않았을 때 생존율 6.2%보다 2.4배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도 현실은 이에 못 미치고 있어 광주시 최초로 이번 '시민 1% 응급처치사' 양성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응급처치 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성인 500명 중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62%로 절반 이상이였으나 실제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할 수 있는 비중은 1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정지 환자 다수가 가정이나 도로,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만큼 응급처치 역량을 보면 일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산구는 이 때문에 시민 누구나 어떤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을 '시민 1%'로 설정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2016년 연구에서 심폐소생술 시행 의지를 가진 주민이 10% 높았을 때 생존



광산구는 최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시민 1% 응급처치사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율이 1.29배 증가한 결과를 참고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산구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재난 시 구호 활동 등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전문성, 실효성 중심의 응급처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업체를 구축한다.

광산구는 우선 이번 해당 교육에 시민 200여명을 참여시킨다는 목표로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심폐소생술 전 과정은 비롯해 상처 및 골절 처치, 갑작스런 질병 대처법 등에 대한 이론·실습을 병행해 진행한다. 모든 교육을 마친 시민에게는 수료증을 지급한다.

광산구는 이를 시작으로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시민 1% 응급처치사 양성 사업을 시작으로 시민이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동시에 안전 인식을 높이고, 재난 사고를 예방하는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태교명상 요가교실

광산구보건소, 참가자 모집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22일부터 31일까지 제2기 '아름다운 D(디)라인 행복찬 출산-도담도담 태교명상 요가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요가교실은 태아의 건강한 발육을 돕고 산모의 정서적 안정과 자세교정을 통해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비대면 프로그램이다. 각 가정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오는 9월 12일부터 매주 화, 목요일 온라인(네이버웨일)을 통해 태교 명상과 호흡법, 도구를 활용한 전신 순환, 부종 완화, 골반 교정 등 전문 강사의 영상을 제공한다.

신청은 광산구명생학습포털 '배우랑개(edu.gwangsan.go.kr)'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보건소 누리집 또는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팀(062-960-8763)에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보건소 관계자는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1913 송정역시장' 110년 특색 살려 관광지로 개발한다

2026년까지 80억 투자

100년이 넘도록 전통시장의 명맥을 이어온 광주 '1913 송정역시장'이 오래된 재래시장의 면모에서 벗어나 유명 관광지로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22일 광산구에 따르면 '1913 송정역시장'의 경우 송정역이 생기면서 형성된 재래시장으로 올해 개장 1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1913의 숫자 자체가 1913년 개장한 매일송정역 시장에서 기원한 것으로 전통시장의 옛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있다.

한때 호남 최고의 전통시장으로 호황기를 누리기도 했던 '1913 송정역시장'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생겨나는 등 소비문화 패권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광산구는 이 같이 갈수록 쇠퇴해져가고 있는 '1913 송정역시장'을 기존 송정역이 ktx 및 SRT 정차역으로 거듭나면서 옛 영화를 되찾기 위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리네 상사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최종 선정된 것을 계기로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총 80억원을 투자, 지역 유명 관광지로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

광산구는 올해로 개장 11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1913 송정역시장'을 오래됐으면서도 새 것 같고, 시장이면서 관광지 같은 곳으로 요소요소를 다양한 컨셉에 맞춰 바뀌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광산로 일원 737개 점포를 대상으로 지



역 특색을 반영한 상권환경개선(H/W),상권 활성화(S/W)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당초 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미뤄져 오다 지난 6월부터 불거리 및 체험거리 등 각종 이벤트를 시작으로 점진적 송정역세권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시동을 걸고 있다.

광주송정역 주변을 핫플레이스(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광주송정역 1시간 맛 거리'를 테마로 광산로, 떡갈비거리, 내상로, 중남회 일원에서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작은축제' 진행하고 있다.

해당 축제는 벚룩시장,야시장,거리공연, 각종 체험행사 등을 함께 진행하면서 ktx 이용객들의 발길이 머물도록 사람냄새 나는 북적이는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 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6월 17일부터 매주 토요일 진행되고 있는 '난장 콘서트'는 일일 ktx 및 srt 이용객 2만 2000여명의 발길과 함께 어울려 성황리에 진행되는 등 오는 10월 28일까지 추진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맛 거리와 불거리,즐길 거리를 통해 '1913 송정역시장'에서 멋진 추억을 간직하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도서관에서 여행도 하고 체험도 즐겨요

광산구립도서관 '4관 4색' 특화공간 특별이벤트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구립도서관 4곳의 특화공간의 시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2월까지 특별이벤트를 운영한다.

광산구는 이야기꽃 도서관,장덕,운남어린이,첨단도서관 등 4개 구립도서관마다 특성과 정체성을 살린 특화공간을 조성, 운영하고 있다. ▲이야기꽃도서관 '누구나 작가실' ▲장덕도서관 '모두모여' ▲운남어린이도서관 '책보고 시골' ▲첨단도서관 '꿈꾸는 시간'과 '빛나는 순간' 등이다.

이벤트는 이러한 공간의 매력과 광산구만의 차별화된 도서관 운영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가입자를 위한 것부터 유아,어린이를 비롯해 성인 등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도장 찍기 여행(스텝 투어), 특별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신규가입자에 대한 1회 최대 다섯 권인 대출 권수를 두 배로 늘려준다. 또 특화공간을 담은 한정판 대출증도 지급한다.

도장 찍기 여행은 광산구립도서관 4곳 특화공간을 이야기로 잇는 '공간42(공간 4개를 이(2)야기로 잇다)' 사업과 연계해 진행한다. 이와 관련, 4개 구립도서관에는 '희망의 빛'을 찾아 도서관으로 모험을 떠나는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벽화가 조성돼 있다.

도장 찍기 여행은 벽화 속 이야기를 중심으로 각 구립도서관을 상징하는 꽃, 책, 배, 별 등 도장을

이용한 '바로찾기(북마크)'를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4개 구립도서관 '바로찾기'를 모아 인증하면 매월 10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한다.

여름방학 기간인 8월 한 달은 '도서관에서 놀고, 방학 숙제하자'라는 제목으로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특별체험을 운영한다. 도서관에 방문해 활동지를 수령하고, 각 도서관을 돌며 자율 체험을 즐기는 내용이다. 모든 체험에 참여해 '희망의 어린이 인증서'에 도장을 받으면, 연말까지 '두 배로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산구 도서관 관계자는 "특화공간 특별이벤트를 통해 도서관 이용자에게 새로운 경험과 혜택을 제공하고, 독서문화 활동의 즐거움을 나누고자 한다"며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도서관정책팀(062-960-3669)이나 장덕도서관(062-960-3992), 이야기꽃도서관(062-960-6816), 첨단도서관(062-960-8296), 운남어린이도서관(062-960-8301)에 문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